

WORLD
CLASS
UNIVERSITY
IT'S CNU

C H O N N A M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지난 세기 역사적 지성이 '민족대학 전남대학교' 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창조적 지성이 '세계대학 전남대학교' 를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전남대학교에는 '지성의 힘' 이 있습니다.

지성의 힘 변화의 꿈

세계 지성을 만나는 곳 IT'S CNU

노벨상급 해외석학 10명이 전남대학교에서 공동연구와 강의를 시작합니다. 전남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 선정에서 6개 과제가 채택되어 전국대학 중 최다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수준과 글로벌 네트워크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세계석학을 초빙, 세계적 연구와 강의를 진행합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과제 (총 연구비 210억여 원)

- + 녹색에너지 기초기술 및 개발연구
- + 그래핀 기반 나노바이오 트랜스듀서 개발
- + 나노 이온성 산화물계 그린 에너지 소재
- + 바이오환경 제어 원천기술 개발
- + 언어와 인지, 대명사 체계의 유형론적 연구
- + 영양소 대사조절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템 생물학적 연구

해외석학 10인 PROFILE

Sheng Luan (46) ¹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교수
 ● '식물의 세포신호전달경로 분석' 연구의 권위자(1991년 하버드대학 박사학위취득) ● Nature 및 Nature Genetics를 포함한 최상위 3% 이내 저널에 30여 편 논문 발표 ● 최근 2009년 미국 식물생명과학자 학회(Americ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로부터 Charles Albert Shull Award 수상

Chandrashekhar P. Joshi (54) ²
미국 미시간공업대학 교수
 ● 리그닌 및 셀룰로오스 합성의 분자유전학 및 유전체학 연구 ● '목본류의 셀룰로오스 생합성 분자유전학 및 생물정보학' 연구의 권위자 ● 미시간 공업 대학 생명공학 연구센터와 임산 및 환경공학 학부 소장 역임 ● 2006 Science 지에 실린 논문의 피인용도 300회, 총 피 인용회수 2100회 이상, '바이오에너지 작물' 3권 집필 ● 미국 국립과학재단 CAREER 수상 (2003~2010) ● 2010년 3월부터 전남대바이오에너지공학과신설에서 강의 및 연구

John E. Carlson (54) ³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
 ● 목본류 유전체의 분석, 유전자 다양성 분석, 환경생명공학 연구분야의 권위자(1982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박사학위 취득) ● 1997년부터 생물정보학을 이용해 목본류의 유전체 및 마이크로 RNA의 보존 및 다양성 규명 ● BMC Genomics를 비롯한 여러 우수 저널 80여편 논문 발표, 2006년 Science지에 논문 발표 300회 이상 피인용도 ● 분자유전학 연구센터 및 생물정보학과 유전체학 대학원 프로그램 소장으로 재직

Kyung-Hwan Han (51) ⁴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교수
 ● 식물 세포벽 성장 발달 조절인자의 권위자 ● 암학 분야에 새롭게 유전체학을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도입 ● 리그노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및 세포벽의 2차 성장과 관련된 식물세포벽 생합성 과정 기전을 규명 ● Trend in Plant Science, Tree Physiology, Plant Journal 등 식물 분야의 최고수준의 저널에 논문발표



Yu-Guo Guo (31) ⁵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교수
 ● 재료화학 나노전기화학 및 나노이온학 연구 ● 중국 과학원 Top 50 award와 전국최우수 학위논문 수여자 (2004년 ICCAS 학위) ● 나노구조 물질의 물리화학과 전기화학 분야 저널 42편 발표, 7편의 특허 등록/출원중 ● 2003년부터 발표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 800편, 다수의 국제학회에서 초청강연 ● 2007년 Distinguished Young Scholar of ICCAS수상 ● CAS Key Laboratory of Molecular Nanost수상

Brian B. Mcspadden Gardner (39) ⁶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부교수
 ● 식물 병의 생물적 방제와 식물미생물의 분자 생태학적 연구 분야 ● 미국 미시간 주립대 식물병리학과에서 박사 학위 '생물적 방제와 식물미생물의 분자 생태학적 연구'의 권위자 ● 토양 유용 미생물의 생태적 기능, 군집 동태, 다양성 분석의 원천 기술을 보유 ● 미생물 biopesticide 활용을 통한 식물 병 방제 원천 기술 개발을 주도 ● 현재 미국에서 Wooster Biotech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

XinXin Li (45) ⁷
중국과학원 교수
 ● MEMS & Nanotechnology에 기초한 초소형 기계 전자소자 분야 연구 ● 트랜스듀서 주핵심 연구실(State Key Lab of Transducer Technology)의 연구책임자 ● 최근 5년 상위 10% 저널을 포함한 SCI저널에 36편 게재, 15개 특허 출원/등록 ● 2006 상하이 젊은 과학자상 수상/2007 2백만 RMB 국립자연과학 연구비 지원 ● 1987년 칭화대(Tsinghua University)졸업(1997년 후던대(Fudan University)석박사학위)홍콩과학기술대학 연구조수(Research Associate),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연구펠로우(Research Fellow), 일본 Tohoku University 강사

Liquan Chen (69) ⁸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교수
 ● 1964년부터 현재 중국의 신화학 초진도체 연구 및 에너지 소재 연구 및 개발 ● Suzhou Phylion Batteries Co Ltd 라는 자동차용 고전력 배터리 생산회사 창업자 ● 1977년부터 360편이 넘는 학술 논문 발표, 1986년 피인용 횟수 2800번, H-index 30 ● 나노이온학분야 SCI Journal 인 Ionics (Springer) 의 Editorial Board 멤버

Lothar Hennighausen (57) ⁹
미국 국립보건원 박사
 ● 1987년 형질전환 동물생물공학(transgenic animal biotechnology) 분야의 선구자적 연구 발표 ● JAK-STAT 신호전달 경로 규명 및 JAK-STAT 신호전달 경로 이상에 의한 암과 대사질환 발생 기작 규명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업적 보유 ● 2001 독일 세계적 연구역량 보유자에게 주는 'Humboldt Prize' 수상 ● 논문 피인용 횟수: 500회 이상, Impact factor 20회 이상 논문 11편, 100회 이상 인용한 논문 수: 30편

Bemd Heine (60) ¹⁰
독일 쾰른대학 석좌교수
 ● '언어 문법화(문법의 형성)' 연구의 권위자 ● 아프리카어를 중심으로 언어의 변화 과정에 인간의 인지(認知) 작용 연구 ● 영국 왕립아카데미와 미국 스탠퍼드대 일본 도쿄대 등 세계 10여개 대학에서 강의

DYNAMIC LABS

세계를 바꾸는 연구실 IT'S CNU

세계를 바꾸고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대인들이 전남대학교 연구실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2008년 총 1,328건, 1,262억원 규모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2008년 SCI 모든 논문 유형에 총 1,277편(교육과 학기술부 발표)이 수록돼 국내 대학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연구실의 연구 사업은 첨단기술융합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광기술기반사업 분야, 녹색기술 분야 등 그 범위가 넓고 비전이 광대합니다.

박테리오파지 융합연구단

교과부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ioni어사업
6년간 총 55억원 지원

박종오 로봇연구소 소장(공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을 총괄책임자로 전남대 의대 백신사업단, 서울대 공대, 서울대 의대, KAIST, 서강대, 독일 KISTEurope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형태로 연구를 진행한다. 박테리오파지는 직경 50마이크로미터 초소형 마이크로로봇으로 박테리아의 암 저항성 및 암 치료성과 약물을 내장하여 활성화되는 MEMS 구조물의 결합으로 암을 능동적으로 치료하는 신개념의 약물전달시스템이다.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인재양성센터

교과부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
5년간 매년 53억원 지원

문중하 센터장(신소재공학부 교수)을 총괄책임자로 광원·광소재 분야, 단위 광소자 제조 분야, 모듈 패키징 분야, 시스템 분야 등 4개 특화분야에서 매년 전문 인력 328명 이상, 연구인력 80명 이상을 배출할 계획이다. 호남권에 지정된 친환경부품소재(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우리대학에 소속된 총 7개 학과(부) 및 전공과 이에 소속된 101명의 학내 교수 및 1,523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녹색성장 인재양성사업이다.

바이오하우징 연구사업단

교과부 4차년도 전국 최상위 사업팀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10년간 총 250억원 지원

송진규 단장(건축학부)을 총괄책임자로 시멘트 없는 '친환경 무사멘트 그린 콘크리트'를 개발해 특하기 술을 확보하고 기업 기술이전까지 성공했다. 이 기술은 친환경적, 친건강적인 새로운 개념의 콘크리트 결합제 기술이며 기존의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 바로 상품화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해 지역특화 녹색기술분야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GLOBAL CAMPUS

지구촌과 소통하는 캠퍼스 IT'S CNU

전남대학교 캠퍼스는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만드는 다국적 캠퍼스입니다. 현재 총 655명(2009년 4월 기준)의 외국인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고, 국제여름학교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 젊은이들이 전남대학교와 한국을 배웁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2009년 상반기 세계 17개 대학에서 52명이 수학하고 있고, 80여 명의 학생들이 국제봉사활동을 통해 인류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전남대학교의 넓은 캠퍼스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득 가능한 학위의 종류는 매우 인상 깊었다. 전남대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매우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육을 중시하고 수업시간에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었으며 나에게도 힘든 만큼 보람찬 경험이었다.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최상의 지리적 경험이었다.

Gail S. Ludwig
미국 미주리대학 교수
2009년 국제여름학교에서 강의



● 2007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후 1년 뒤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동안 다양한 학교구성원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내 생애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에서 나의 역할은 오히려 교수의 영어음성학 수업을 도와주는 수업도우미의 역할이었고 너무나 보람있었다.

Jeremy J. Goard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
2009년 국제여름학교 수업 도우미



● 필리핀에서의 매일매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 쉽게 보내고 싶지 않는 시간들이다.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문화, 그리고 UP 만의 수업방식, 모두 내가 필리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다. 다음 학기에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마케팅 수업과 관광수업에 참여하고 싶다.

김진아
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3년
2009년 필리핀국립대학교 교환학생



GOOD EDUCATION

통섭·휴먼의 알찬 교육 IT'S CNU

전남대학교는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알찬교육, 성공예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는 초년생교육, 총장명예학생 프로그램, 기초·핵심 교양교육 강화, 도전장학생, 양방향 국제교류,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 **뿌리 교육** _ 맞춤형 전공교육과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기초학문과 전공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학문의 뿌리가 튼튼한 인재를 키웁니다.
- **통섭 교육** _ 총장명예학생(President Honor Students)제도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뽑아 횡단형 통섭교육을 실시하고 그릇이 큰 미래형 인재를 키웁니다.
- **글로벌 교육** _ 학과별 특성에 맞춘 국제 인턴십과 자매결연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를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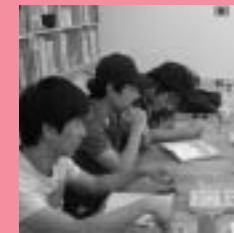
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 **휴먼 리더 교육** _ 가슴이 따뜻한 지성을 북돋기 위해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휴먼 리더를 키웁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 CNU의 특별한 교육

자이탐색을 통한 진로설계를 시작으로 취업캠프, 기업체 현장실습,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키웁니다.

초년생부터 독서를 통해 창의성과 기초소양을 키우고,

고학년들은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 핵심인재로 양성합니다.



기초 소양을 갖춘 인재

전남대 학생들은 2주 1권 이상의 '독서와 토론', '신문읽기'를 통해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협력, 목표 지향적 사고 등 직업기초능력을 초년생부터 키워갑니다.

제대로 직무를 아는 인재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영업 경영기획, 금융 6시그마 등 직무 분야별로 교육하며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미니 MBA'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차세대 이공계 CEO양성을 위한 미니 MBA)

기업 주문형 교과과정 운영 - 산학협력 3개 트랙제

LG이노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기업체와 주문형 교과과정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동강좌, 현장교육 실시 등 산업체 밀착형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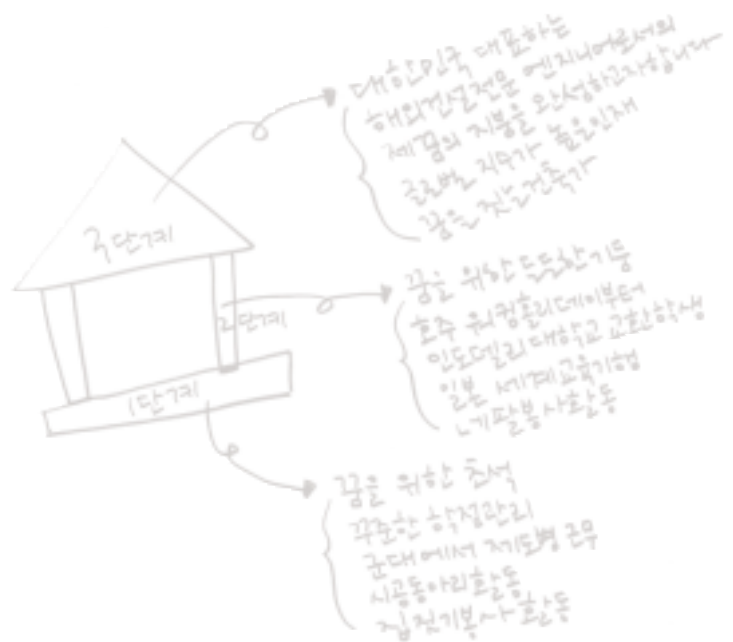
알파우먼, 기업이 원하는 여성 인재

필수자격증, 다양한 활동, 비즈니스 매너 등 기업이 원하는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커리어우먼스쿨만의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팀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경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알파우먼 프로젝트, 커리어우먼 스쿨)

● ● 튼튼한 시공으로 내 인생의 '랜드마크' 건축

양 동 욱_공과대학 건축학부 4년

건축은 사람들의 필요와 바람을 담는 그릇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그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건축은 빛나고 있다. 나는 그 중심에 서고 싶다. '해외공사전문가'가 되기 위해 내 삶의 기반공사 중이다.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호주에서의 1년,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국제 경제와 사회·IT를 공부했던 교환학생 기간, 일본 우츠노미 대학교에서 '친환경 건축'을 공부하고 발표했던 일,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한 시공작업, 어려운 이들을 위한 건축봉사, 그리고 건축사 건축자격 시험 통과... 세상을 배우고 건축을 알아가는 기반이 되었다. 세계인을 감동시킨 한국의 건축처럼 내 삶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 나는 지금 도전 중이다.



해외대학 교환학생제도 지매결연을 맺은 세계 26개국 130여 개 대학에 재학생을 파견하는 제도로
외국 지매대학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1학년 국제화과정을 운영한다.
2009년 상반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17개 대학에 52명을 파견했다.

국제자원 전문가 그 꿈을 향해, 10년의 도전

안 부 용_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2년

10년 후 나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에너지 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내 꿈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집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있는 전남대학교에 진학한 것이 내 꿈을 향한 첫 발이었다. 1학년 여름방학에 두 개의 국제 NGO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야를 넓혔고, 영어회화 동아리 활동으로 국제무대에서 설 기본기를 다지고 있다. 전남대학교의 총장명예학생으로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전공실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나를 발견한다. 내 꿈을 향해 가는 길은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너무나 빠듯하다. 나는 지름길로 갈 것이다. 학·석사연계과정을 활용해 공부를 빨리 마치고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입사해 현장실무를 익힌 다음 UNIDO를 두드릴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겐 하루가 너무나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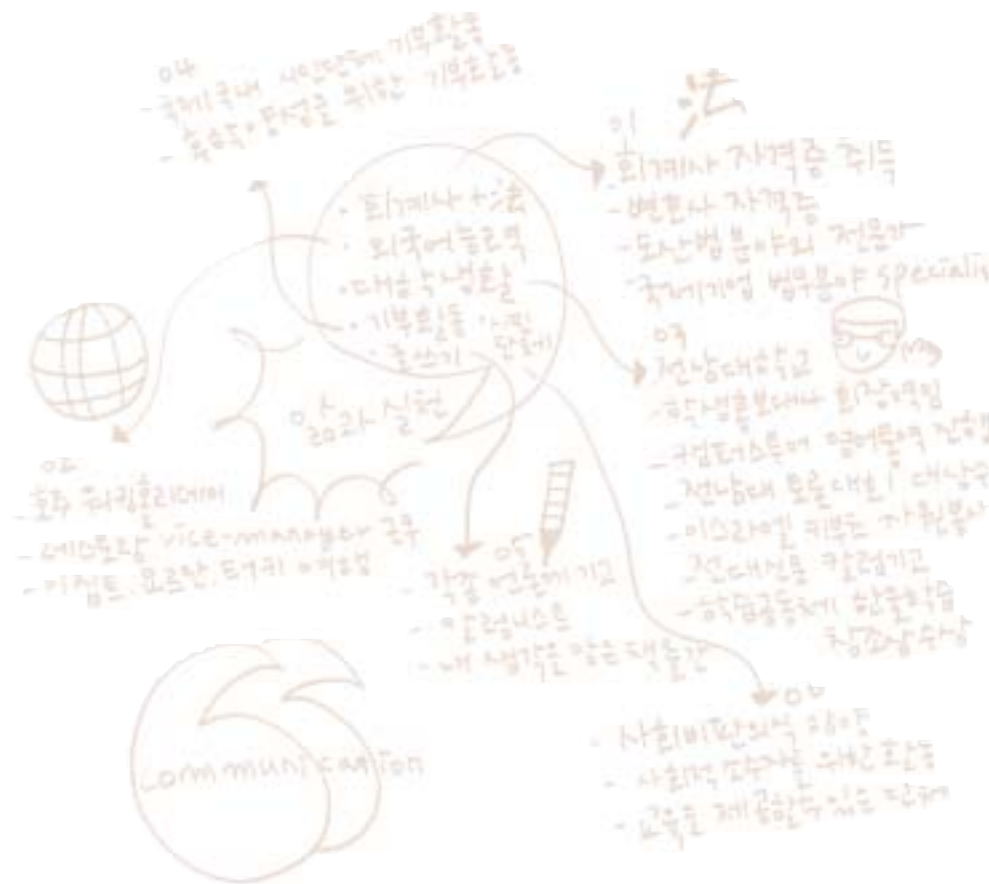
PHS (President Honor Students) 신입생 중 글로벌 인재로서 잠재력을 가진 우수학생 1%를 선발해 통선교육과 글로벌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제도다. 학문활동형 특강강의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개발프로젝트 수행, 해외연수, 선진기업·공공기관 등과 네트워크 인재양성시스템 적용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운다.



소통으로 성장한 지혜와 꿈, 패기의 도전

김현열_법과대학 법학과 4년

소통은 아름답다. 열린 마음과 밝은 세상을 만든다. 영어분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호락호락' 토론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 소중한 의미를 알게 됐다. 내 입을 통해 전남대학교가 세계와 소통한다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다. 전남대학교를 찾는 영어문화권의 방문자는 누구나 나를 통해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안내 받는다. 단 돈 70만원을 들고 떠난 호주에서 배운 언어와 지혜가 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재산이 됐다. 2007년 국제교류센터의 지원으로 봉사활동을 간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만난 세계의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패기를 배웠다. 그 패기를 생각하며 나는 지금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세상과 뜨겁게 소통하는 내 미래를 위해. 법학을 전공했지만 다른 학문인 회계학 공부를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가 된 후 경제 전문 법조인으로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토론대회 '號樂互樂' 매년 학술동아리 NEOFEC 주관, 학생지원처 지원으로 개최되는 토론대회 '호락호락'은 대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 능력을 함양시키고, 우리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주체적 인식능력을 제고하는 등 대학 내 토론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본질적 질문에서 내 길길 찾았다

이수빈_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4년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철학, 심리학, 어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지평을 넓혔다. 그 과정을 통해 가슴이 넓어지고 눈이 밝아졌다. 학교 지원으로 네팔·인도로 떠난 세계교육기행에서 프리허그 운동을 하면서 성별, 계층, 세대를 넘어서는 사랑을 체험했다. 전공 이외의 요가, 명상, 음악, 봉사활동을 통해 내 영성을 키우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했다. 2009년 그동안의 활동으로 맺은 인연을 토대로 청소년대안학교 ‘지혜학교’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진정한 창조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라이프컨설턴트로서 의미있는 내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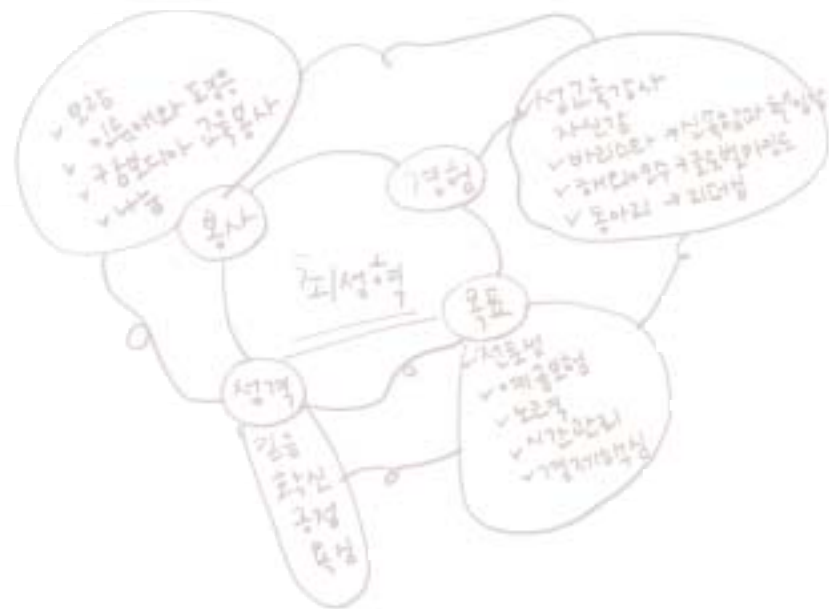


도전·도약 장학생 창의적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도전장학생제도는 도전정신이 강하고 진취적인 학생들 중 사회봉사활동과 대학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교육적·경제적 지원을 해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게 돕는 제도다. 도약장학생제도는 잠재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외된 이들 손 잡고 내 가슴 더 넓어졌다

최성혁_경영대학 경영학부 4년

나는 세계를 배우고, 세계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 여름 캄보디아로 떠난다. 학생들의 자력 봉사모임인 휴먼스쿨 팀원 11명과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의 20개 학교를 돌며 에이즈 예방교육을 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십 번의 회의를 갖고, 밤을 새우며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가 극악한 질병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믿으면서, 내 능력을 다해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설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전문인으로서 내 자신을 단련하는 일에도 치열하다. 2007년 영국에서 1년간 장기비즈니스 과정을 이수하면서 글로벌경제를 배우고 6개월 바리스타로 일한 런던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서비스경제의 흐름을 체득했다. 이런 시간들이 경제학도인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다. 이 경험을 재산삼아 금융전문가로 자신있게 서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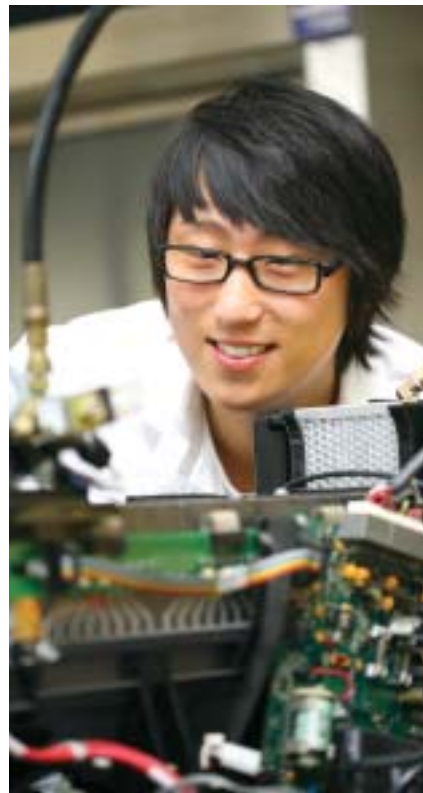


국제봉사활동지원 학생들에게 국제경험과 자기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화 시대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 10여개 국가에서의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80여명이 국제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소에너지 무한한 가능성 내 꿈의 연료 더 뜨거워졌다

김 선 학 _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4년

내가 활동하는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연구실' 문에는 'My dream is driving fuel cell car' 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우리 연구회원들은 그 꿈대로 수소연료전지차 H2FC CAR1을 개발했고 2008 대한민국에너지체험전, 2008 국제자동차로봇전, SWEET 2008에 초청돼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수소연료전지차를 시운전했다. 2009 제5회신재생에너지이용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내 꿈의 연료는 더욱 뜨거워졌다. '수소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에 내 미래를 걸기로 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용해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료전지의 기능, 부품,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와 공부를 해 갈 것이다. 이미 컨버터, 컨트롤러 관련 기술을 활용한 회생제동분야 연구를 시작했다.



문제해결 능력향상 연구 프로젝트 강의실 밖의 연구실 지도로 학생들이 학문적 역량을 크게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도교수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을 익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규모 연구프로젝트이다.



C H O N N A M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